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김영선 · 이정화*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1. 서론

의료 기술의 발전과 출산율 감소, 의료보장제도의 강화는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전망이다¹⁾. 한국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²⁾.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부족,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역 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노인차별의 원인³⁾이 되며, 노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신념을 갖고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쇠퇴하여 소멸해 가는 생의 단계에 있다는 고정관념이 노인에 대한 낙인 형태로 나타나 노인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⁴⁾.

노인차별주의는 연령차별(Agrian)이라는 용어로도 일컬어지며 일반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⁵⁾. 노인차별주의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고립을 가중시켜 노인을 사회적으로 배제 시키거나⁶⁾, 노인에게 우울증, 정신건강과 연결되어 자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⁷⁾.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 (2019)⁸⁾에 따르면 대상별 차별 등의 정도를 실린 항목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에 비해 노인에 대한 동의가 56.7%로 가장 높았다.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및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기선과 이정화⁹⁾, 장경애와 허성은의 연구¹⁰⁾에서 노인과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노인차별주의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의 교류 및 사고의 유연성 강화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¹¹⁾.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화로 인한 변화로 신체 감각 기능의 변화,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저하 등의 심리적

접수일: 2023년 11월 23일 최종수정일: 2023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4일

교신저자: 이정화 Jung-Hwa Lee,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Tel: 053-320-1333/Fax: 053-320-1340

E-mail: leejh0704@hanmail.net

변화, 지위나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의 사회적인 변화를 포함한다¹²⁾.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고정관념과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여 노인차별주의로 이어지고⁵⁾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거나¹³⁾,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차별주의가 높았다⁹⁻¹⁰⁾. 이에원¹⁴⁾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노인에 대한 태도란 노인 개인 혹은 노인 집단 전체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반응을 말한다¹⁵⁾. 노인에 대한 태도로는 노인들은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세다 등의 부정적인 태도와 노인들은 현명하고, 관대하다 등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¹⁶⁾.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차별주의가 높고¹⁷⁾,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¹⁸⁾ 노인차별주의가 낮았다⁹⁻¹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¹⁹⁾,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교육 수강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²⁰⁾. 보건 의료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뿐만 아니라 지식이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²¹⁾.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고정관념은 노인 환자의 구강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며, 미래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는 것은 향후 노인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호사, 간호대학생, 사회복지전공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직접 노인 환자를 대면하여 치위생 처치를 하는 치과위생사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진하였다. 이에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

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0.3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계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160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어 부적절한 설문 응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총 204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노인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2문항(성별, 연령)과 노인 관련 특성 4문항(노인 동거경험, 노인 관련 교육 수강 경험, 주 양육권자, 노인봉사경험)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Palmore²²⁾가 개발한 Fact On Aging Quiz(FAQ)을 한정란 등¹²⁾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노인에 대한 지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신체적 영역 11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영역 8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한정란 등¹²⁾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691이었다.

(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Sanders 등²³⁾이 개발한 Semantic Differential Attitude Scale을 임영신 등²⁴⁾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반되는 형용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긍정적' 1점에서부터 '매우 부정적' 7점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6, 7, 10, 12, 15, 18문항의 점수는 역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임영신 등²⁴⁾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92이었다.

(4) 노인 차별주의

노인 차별주의를 확인하기 위해 Fraboni 등²⁵⁾이 개발한 Fraboni Scale of Ageism(FSA)을 김지연 등²⁶⁾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노인 차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 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정서적 회피 7문항, 차별 5문항, 고정관념 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지연 등²⁶⁾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3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

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200명(98.0%)이었고, 연령은 19세 이하, 20세, 21세 이상 각각 68명(33.3%)였다. 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으로 노인관련 교육이수 경험은 '있다' 63명(30.9%), 주 양육권자는 '부모' 187명(91.7%), '조부모' 17명(8.3%)이었다. 조부모와 생활 경험 '있다' 66명(32.4%), 노인관련 봉사경험 '있다' 89명(43.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N(%)
Gender	Man	4(2.0)
	Woman	200(98.0)
Age	>19	68(33.3)
	20	68(33.3)
	21<	68(33.4)
Experience in completing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Yes	63(30.9)
	No	141(69.1)
Custodian	Parent	187(91.7)
	Grandparents	17(8.3)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Yes	66(32.4)
	No	138(67.7)
Experience of volunteering related to the elderly	Yes	89(43.6)
	No	115(56.4)

3.2.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 ± 0.36 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고정관념이 2.23 ± 0.46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회피 2.11 ± 0.53 점, 차별 1.67 ± 0.38 점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 ± 0.15 , 사회적 영역 0.36 ± 0.17 , 심리적 영역 0.35 ± 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 ± 0.27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rontism and Knowledge and Attitude Score for the Elderly

Variable	Division	Range	M±SD	Total
Knowledge of the elderly	Physical	1-0	0,57±0,15	6,26±1,05
	Psychological		0,35±0,20	2,10±1,00
	Social		0,36±0,17	2,88±1,02
	Total		7,64±0,16	11,27±3,30
Attitude toward the elderly		1-7	3,86±0,27	
	Emotional avoidance	1-4	2,11±0,53	14,77±3,71
Old-age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1,67±0,38	8,35±1,90
	Fixed idea		2,23±0,46	13,38±2,76
	Total		2,03±0,36	11,24±2,79

3.3. 노인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 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 '시력, 청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은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2.6%,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

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요양원, 노인주거시설 등에 살고 있다' 7.4%,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가 11.3%, '대부분의 노인들은 최저 생계비(정부에 의해 규정된) 이하의 수입을 가진다' 13.2%의 순이었다(Table 3).

Table 3.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question of knowledge about the elderly

Question	N	%	Ranking
Physical strength tends to decrease with age	190	93.1	1
Eyesight, hearing, taste, touch, and smell all tend to decrease with age	189	92.6	2
Lung capacity tends to decrease with age	182	89.2	3
Older people tend to have slower reaction times than younger people	178	87.3	4
Older people usually take longer to learn new things than young people	173	84.8	5
Most elderly people are working or want to have any kind of work	141	69.1	6
Most of the elderly are impossible to adapt to change	137	67.2	7
At present, more than 15% of the population is 65 years of age or older	132	64.7	8
More than 50% of the elderly are healthy enough to carry out daily activities	111	54.4	9
Many elderly people feel miserable most of the time	102	50.0	10
Depression occurs more in older people than in young people	99	48.5	11
Most elderly people are socially isolated	92	45.1	12
In the future, the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will be almost the same as or worse than the present	84	41.2	13
Most senior office workers cannot work more effectively than younger office workers	71	34.8	14
Older people at work are less likely to have accidents than younger people	58	28.4	15
Most of the elderly suffer from disruption	58	28.4	16

Question	N	%	Ranking
In general, old people become similar in every way	58	28.4	17
Most elderly people have no interest in sex and no ability	55	27.0	18
Most old people say they are rarely bored	34	16.7	19
Older people tend to become more religious as they get older	32	15.7	20
Most healthcare workers tend to give low priority to the elderly	31	15.2	21
Most elderly people rarely get excited or angry	28	13.7	22
Most senior citizens have incomes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27	13.2	23
Older drivers have fewer accidents per person than younger drivers	23	11.3	24
At least 5% of the elderly live in nursing hom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15	7.4	25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노인 차별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자(2.01 ± 0.36)보다는 남자(2.30 ± 0.11)가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와의 생활경험이 없을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Table 4).

3.5.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노인 차별주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하위영역에서는 심리적인 영역($r=-.279, p<0.001$)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	Division	Knowledge		Attitude		Discriminatoryism	
		M±SD	p	M±SD	p	M±SD	p
Gender	Man	12.25±2.62	0.584	3.90±0.60	0.625	2.30±0.11	0.040*
	Woman	11.25±3.13		4.26±0.70		2.01±0.36	
Age	>19	11.12±3.47	0.735	3.78±0.27 ^a	0.009**	1.93±0.35 ^a	0.026*
	20	11.51±2.55		3.92±0.26 ^b		2.10±0.35 ^b	
	21<	11.19±3.30		3.88±0.28 ^{ab}		2.04±0.37 ^{ab}	
Experience in completing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Yes	3.89±1.08	0.448	3.85±0.29	0.191	2.01±0.32	0.098
	No	3.69±1.02		3.86±0.27		2.02±0.38	
Custodian	Parent	3.76±1.06	0.154	3.86±0.27	0.641	2.03±0.35	0.281
	Grandparents	3.70±0.73		3.81±0.30		1.82±0.41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Yes	3.87±1.09	0.549	3.81±0.29	0.694	1.97±0.43	0.001**
	No	3.70±1.02		3.88±0.27		2.05±0.32	
Experience of volunteering related to the elderly	Yes	3.87±1.06	0.992	3.86±0.27	0.240	2.03±0.34	0.187
	No	3.66±1.01		3.85±0.28		2.01±0.38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alpha=0.05$

a, b, c Means followed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Knowledge			Attitude	Discriminatoryism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motional avoidance	Discrimination	Fixed idea
Old-age discrimination	-.192**	-.279**	-.271**	-.460**	.892**	.623**	.768**

** $p < 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고찰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 ± 3.30 점이었다. 하수정²⁰⁾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11.46 ± 3.23 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높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수정²⁰⁾의 결과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순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았는데 노화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치위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질적 향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 '시력, 청력,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은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2.6%,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9.2%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지식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요양원, 노인주거시설 등에 살고 있다' 7.4%,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가 11.3%로 사회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 지식이 비슷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노인관련 교과목 개설을 통해 노인의 특성을 교육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 ± 0.27 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수정²⁰⁾ 3.86 ± 0.73 과 김수옥 등

²⁷⁾의 3.97 점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김희정²⁸⁾의 4.09 ± 0.49 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 및 노인관련 경험과의 차이 비교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자(2.01 ± 0.36) 보다는 남자(2.30 ± 0.11)에서 연령이 높고, 조부모와의 생활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 차별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차별주의는 김현주, 이영미¹³⁾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동거경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김승용, 윤미선²⁹⁾의 연구에서는 학년($p < 0.075$), 성별($p < 0.088$), 조부모와 유대감($p < 0.01$)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장경애, 허성은¹⁰⁾은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이 있고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경험한 경우, 노인에 대한 차별과 정서적 회피가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최은정 등¹⁷⁾은 노인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차별이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서 노인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고, 노인 관련 봉사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인 관련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통한 접촉기회 제공과 노인 관련 실습을 늘리면 노인에 대한 차별주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관련 특성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치과위생사의 직무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진영³⁰⁾도 노인들의 만성질환인 치매교육 및 체험활동 경험을 통한 지식이 증가하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노인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주아, 하지연³¹⁾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차별적인 편견 및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최은정 등¹⁷⁾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차별주의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에서는 심리적인 영역($r=-.279, p<0.001$)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지식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주의는 높다고 한 김현주, 이영미¹³⁾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경화³²⁾는 질적인 노인간호를 위해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태도 요인은 중요하고, 노인보건의료 현장에서 수행하는 노인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 관련 교육을 통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한 치과위생사 직무와 관련한 노인차별의식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차별주의를 연구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급증하는 노인환자의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교육에서의 방향설정과 실천 방법을 논의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 ± 0.36 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고정관념이 2.23 ± 0.46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회피 2.11 ± 0.53 점, 차별 1.67 ± 0.38 점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 ± 0.15 , 사회적 영역 0.36 ± 0.17 , 심리적 영역 0.35 ± 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 ± 0.27 로 나타났다.
2.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 ± 3.30 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정답률은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고,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요양원, 노인주거 시설 등에 살고 있다' 7.4%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4.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RCID ID

Jung-Hwa Lee, <https://orcid.org/0000-0001-8936-2988>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3 Seniors Statistics.
2. Bae SH, Kim GY.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ageism among Korea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ing anx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22;42(3):260-281. <https://doi.org/10.15709/hswr.2022.42.3.260>
3. A plan to discriminate against the elderly on the occasion of entry into an aging society. The JoongAng Ilbo 2017.
4. So MS. The effect of indirect contact with senior citizen through the media of college students on ageism; Mediated effect of the elderly stigma and aging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eneral Counseling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eoul, 2021.
5. Park SR.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nd Testing Moderating Effect of Elder Knowledge. *사회과학연구* 2015;22(1):279-302.
6. Shin HG. Effects of the elderly's ageism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 and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KJGSW* 2012;56:191-215. <https://doi.org/10.21194/kjgsw.56.201206.191>
7. Kang CR, Cho YT. The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on suicide idea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2;35(3):1-27.
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Hate Expression", 2019.
9. Lee GS, Lee JW. The influence of the older adults-related experience on the image of older adults and age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0;40(6):1267-86. <https://doi.org/10.31888/JKGS.2020.40.6.1267>
10. Jang KA, Heo SE.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geis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3): 185-194.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3.185>
11. Ha TH, Lee EY.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of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mothers'. *JKDIS* 2021;32(3): 515-31. <https://doi.org/10.7465/jkdi.2021.32.3.515>
12. Han JR, Ryu HS, Kim KJ.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bout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07;26(3): 121-39.
13. Kim HJ, Lee YM. Influence of ageing knowledge and family strengths on ageism among the nursing students. *Korean J Rehabil Nurs* 2018;21(2):83-90. <https://doi.org/10.7587/kjrehn.2018.83>
14. Ye Won, Lee. Effects of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empathy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Gerontology & Dementia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21.
15. Han JR, Lee GY, Won YH.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attitude between the youth and the elderly: On the basis of co-orientation Model and IP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6;26(2):381-402.
16. Um IS. Study on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

- toward ol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2010.
17. Choi EJ, Jung MH, Choi HJ. A study on the effects of ageism of dancers on their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lderly contact experience. *KSSS* 2020;29(5):887–96. <https://doi.org/10.35159/kjss.2020.10.29.5.887>
 18. Noh HJ. Public hospital nurses' knowledge of geriatric nursing. Their attitude toward the aged people and their practices of geriatric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23.
 19. Kwon YH, Lee HY, Hwang SS.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J Korea Acad—Indus cooper Soc* 2013;14(11):5785–91.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785>
 20. Ha, SJ. Factors affecting elderly discrim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amily health and image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3.
 21. Liu Y, Norman IJ., While, A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Int J Nurs Stud* 2013;50:1271–1282.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11.021>
 22. Palmore, E.B. *The Facts on aging Quiz*. Springer Pub Co.
 23.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F, & Balkwell C. Youth'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84;3(1):59–70.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24. Im YS, Kim JS, Kim KS.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Korea Gerontological Soc* 2002;22(1):31–46.
 25. Fraboni, M., Saltstone, R., Hughes, S.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1990;9: 56–60. <https://doi.org/10.1017/S0714980800016093>
 26. Kim JY, Kim MH, Min KH.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Soc Personality Psychology* 2012;26(4):89–106. <https://doi.org/10.21193/kjspp.2012.26.4.006>
 27. Kim SO, Oh HS, Wang MS.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6;22(2):163–170.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63>
 28. Kim HJ.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elderly. *Jour of KoCon, a* 2016;16(12):213–22. <https://doi.org/10.5392/JKCA.2016.16.12.213>
 29. Kim SY, Yoon MS. Factors influencing the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college Students. *Jour of KoCon,a* 2018;18(11):369–78. <https://doi.org/10.5392/JKCA.2018.18.11.369>
 30. Cho JY.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toward dementia in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2):257–65. <https://doi.org/10.14400/JDC.2016.14.12.257>
 31. Kim JA, Ha JY. Factors influencing ageism in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istration* 2019;25(5):393–403.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5.393>
 32. Lee KH. A study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needs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초록

연구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전망이다.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 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이에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 ± 0.36 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 ± 0.15 , 사회적 영역 0.36 ± 0.17 , 심리적 영역 0.35 ± 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 ± 0.27 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 ± 3.30 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어: 노인, 지식, 차별, 치위생, 태도

ABSTRACT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Young-Sun Kim · Ju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Background: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n Korea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o 18.4% in 2023, an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at 20.6% in 2025. In clinical practice, the elderly discrimination of dental hygienists may experience difficulties during dental hygiene treatment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atients due to aging, which can lead to maladjustment to work and turnover, so education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is essential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istry, who are prospective dental hygienists. Accordingly, a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for a super-aged society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discrimination and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elderly, and to change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and develop programs related to the elderly.

Method: 204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istry in D are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The subject's geriatric discrimination,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ere calculat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geriatric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with a Scheffe' test applied for post-ho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ubject's geriatric discrimination,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Results: Geriatrics scored 2.03 ± 0.36 out of 4. Knowledge about the elderly was categorized as follows: physical domain 0.57 ± 0.15 ; social domain 0.36 ± 0.17 ; and psychological domain 0.35 ± 0.20 .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3.86 ± 0.27 . Knowledge of the elderly averaged 11.27 ± 3.30 points out of 25. The question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o knowledge about the elderly was 'physical strength tends to decrease with age', which was 93.1%.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0.040$), age ($p=0.026$), and life experience with grandparents ($p=0.001$). The elderly discrimination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in both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the elderly, and among the elderly discrimination,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regard to emotional avoidance ($r=.892, p<0.001$).

Conclusion: College students are the leading players in caring for the elderly and are directly affected by ag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pply various programs in the state, societ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avoid negative prejudices that lead to positive think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Key words: Attitude, Dental hygiene, Discrimination, Elderly, Knowledge